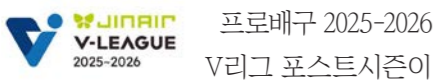


# KB vs 우리... '외나무 다리 결투'

### 오늘 준플레이오프 '단판 승부'

두 감독대행 살아남기 지략전 이기면 현대와 챔피언 진출권 외국인 주포 비에나·아라우조 팀 명운 건 스파이크 화력 대결 황택의·한태준 세트 격돌 불만



프로배구 2025-2026 V리그 포스트시즌이 개막한 가운데 남자부 KB손해보험과 우리카드 간 준플레이오프(준PO)는 감독대행 간 지략대결로 관심을 끈다.

정규리그 3위 KB손해보험과 4위 우리카드는 25일 오후 7시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단판 승부'로 치러지는 준PO에서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다툰다. 여기서 이긴 팀은 정규리그 2위 현대캐피탈과 3전 2승제로 챔피언결정전 길목에서 맞붙는다.

KB손해보험과 우리카드는 모두 '감독대행 체제'여서 하현용 대행과 박철우 대행이 지략 대결을 벌인다.

또 외국인 주포들의 스파이크 대결과 최고의 '코트 사령관' 자존심을 건 세트 싸움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하현용 KB손보 대행과 박철우 우리카드 대행은 작년 12월 30일 나란히 임시 사령탑에 올랐다.

레오나르도 카르발류 전 KB손보 감독



박철우 우리카드 감독대행



하현용 KB손보 감독대행

과 마우리시오 파에스 전 우리카드 감독이 동반 사퇴하면서 같은 날 지휘봉을 잡은 것. 둘은 팀을 추슬러 극적으로 소속팀을 '봄 배구'로 이끌었다.

하현용 대행은 정규리그 최종전이었던 18일 한국전력과 '단판대 매치'에서 3-0 완승을 거둬 정규리그 3위를 확정했다.

이날 경기에서 패하듯 포스트시즌 경쟁에서 탈락할 상황이었지만, 셋아웃 승리로 팀 순위를 종전 5위에서 3위로 끌어올렸다.

하현용 대행은 취임 후 18경기에서 9승 9패로 50% 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KB손보는 하현용 대행의 승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봄 배구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감독대행 포지션을 떼고 정식 사령

탑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우리카드의 박철우 대행도 '박철우 매직'으로 불리며 팀 최고 성적표를 받았다. 취임 후 18경기에서 14승 4패를 기록하며 77.8%의 높은 승률로 봄 배구 티켓을 따낸 것. 전임 파에스 감독 체제 18경기에서 6승 12패(승률 33.3%)에 그쳤던 걸 고려하면 대단한 성과다. 박철우 대행은 네명의 감독대행 중 포지션을 떼고 감독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선수 시절 미들 블로커로 뛰었던 하현용 대행과 아포지 스파이크로 활약했던 박철우 대행의 두 양년의 스타의 사령탑 지략 대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올 시즌 정규리그 득점 부문 2위와 3위에 오른 KB손보 안드레스 비에나(등록명 비에나)와 우리카드 하파엘 아라우조(등록명 아라우조)가 팀의 명운을 건 스파이크 대결을 펼친다.

2024-2025시즌 득점왕인 비에나는 올 시즌 득점 부문 2위(829점)에 올랐고, 공격 종합 5위(성공률 52.07%)에 랭크됐다.

비에나에 맞서는 아라우조는 득점 부문 3위(809점)와 공격 종합 3위(성공률 52.13%)에 이름을 올렸다. 정규리그 마지막 6라운드 대결에선 아라우조가 19득점으로 18득점의 비에나를 근소하게 앞섰지만, 팀 승리는 3-2로 이긴 KB손보의 비에나가 쟁했다.

비에나는 토스가 좋지 않을 때도 어려운 하이볼 처리 능력이 뛰어난 반면 키 207cm의 좋은 체격 조건 가진 아라우조는 높은 점프력을 이용한 수직 강타가 무이다.

비에나는 왼쪽 날개의 나경복, 임성진, 아미 굴리아(등록명 아미)의 지원사격을 받고, 아라우조는 아시아 쿼터 알리 하그 파라스트(등록명 알리), 토종 공격수 김지한과 삼각편대를 이룬다.

KB손보의 황택의와 우리카드의 한태준은 국가대표 세터로 활약한 V리그 최고 수준의 코트 사령관이다.

올 시즌 정규리그 세트 성공 부문에선 황택의가 부문 2위(세트당 11.71개)를 차지해 3위(세트당 11.12개)의 한태준에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2024-2025시즌 정규리그 3위를 하고도 플레이오프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던 황택의는 국내 연봉킹(12억 원)의 자존심을 살려 우리카드의 상승세를 잠재우겠다는 각오다.

클 사진·연합뉴스

## MLB 개막전, 이정후 나홀로 출격

### 내일 홈서 양키스와 맞붙어 김하성·송성문은 부상 악재



2026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개막전 무대를 밟는 한국인 선수는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

개막전 무대를 밟는 한국인 선수는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 단 한 명뿐이다.

이정후는 올해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서 꽤조의 타격감을 뽐내며 개막전 출격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타율 0.455(22타수 10안타), 1홈런, OPS(출루율+장타율) 1.227로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

샌프란시스코가 리그 최고 수준의 중견수 수비 능력을 갖춘 해리스 베이더를 영입하면서 이정후는 우익수로 자리를 옮겼다.

수비 부담을 덜어낸 만큼, 타석에서 확실한 생산력이 기대된다.

이정후의 소속팀 샌프란시스코는 26일(한국시간) 홈구장인 오라클파크에서 뉴욕 양키스와 개막전을 치른다.

샌프란시스코와 양키스를 제외한 28개 구단은 27일 일제히 개막전에 나선다.

샌프란시스코와 양키스의 경기는 MLB 전체 공식 개막전이며,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경기다.

지난해 이정후는 양키스 원정 경기에서 한 경기 홈런 2개를 쏘아 올리며 '전국구' 스타로 도약할 기회를 얻었다.

타고난 스타성을 뽐내는 이정후가 넷플릭스의 야심 찬 첫 MLB 중계 경기에서 활약하면 전 세계의 야구팬에게 이름을 각인할 수 있다.

한국인 빅리거 마형 김하성(30·애틀랜타 브레이브스)과 올해 빅리거에 도전하는 송성문(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은 부상자 명단(DL)에서 시즌 개막을 맞이할 전망이다.

김하성은 올해 1월 국내에서 방관길

에 미끄러져 오른손 중지 힘줄이 파열되는 악재를 맞았고, 이 때문에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알렉스 앤소폴로스 애틀랜타 사장 겸 단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하성의 복귀 시점을 5월 초중순으로 예상했다.

송성문은 이정후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올해 빅리거 무대를 밟을 후보다.

샌디에이고와 4년 계약을 체결한 그는 1월 국내에서 훈련 도중 옆구리 근육(내복사근)이 찢어졌다. 이후 순조롭게 회복해 MLB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 출전했으나 부상이 재발했다.

24일 시범경기 최종전에 복귀한 송성문은 타율 0.235(17타수 4안타), 1홈런, 1타점, 3득점으로 몸풀기를 마쳤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그를 부상자 명단(DL)에 올려 재활 경기를 치르게 한 뒤 4월 중순 빅리거로 부른다는 계획을 세웠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 김해성(27)은 시범경기 타율 0.407(27타수 11안타), 1홈런, 6타점, 도루 5개로 활약하고도 개막 로스터 26명에 들지 못했다.

데ιβ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김해성의 스윙에 교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의 기량에 물음표를 붙였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 김해성(27)은 시범경기 타율 0.407(27타수 11안타), 1홈런, 6타점, 도루 5개로 활약하고도 개막 로스터 26명에 들지 못했다.

데ιβ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김해성의 스윙에 교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의 기량에 물음표를 붙였다.

데ιβ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김해성의 스윙에 교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의 기량에 물음표를 붙였다.



## “이강인 부상, 큰 무리 없어”... 한시름 놓은 홍명보

### 니스 원정 경기서 발목 꺾여 월드컵 평가전 대표팀 합류

선수들의 잇단 부상에 신음하던 홍명보호가 한시름 뉘었다. 큰 부상이 염려됐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사진)의 발목 상태가 예상만큼 나쁘지는 않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A매치 2연전의 첫 경기 코트디부아르전을 치를 영국 런던 북서쪽 밀턴킨스에 23일(현지

시간) 입성했다. 홍 감독 등 코치진과 함께 이동한 국내 파 선수들과 각자 결전지로 온 유럽파 선수들은 숙소에서 만나 서로를 반겼다.

A매치 전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의 마지막 경기에서 발목을 다친 이강인 역시 이날 대표팀에 합류했다.

이강인은 21일 니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후반 14분 상대 미드필더 유수프 은다이스이시미에로부터 거친 과울을 당했다. 이강인이 동료에게 패스하자마자 은다이스이시미에가 이강인의 왼쪽 발목 아킬

레스건 부위를 강하게 밟았다. 쓰러진 이강인은 왼손으로는 발목을 부여잡고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은다이스이시미에는 레드카드를 받았고, 이강인은 교체됐다.

중계 영상을 보면 발목이 크게 꺾인 터라 부상 정도가 심각한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작았었다.

그러나 대표팀 관계자는 “현재 이강인은 (발목 상태에) 큰 무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도 괜찮아 보인다”면서 “물론 정확히 상태가 어떤지 체크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을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에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자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



박재역 지음 | 336쪽 | 20,000원 | 글로벌콘텐츠